

# 8

## 석정 윤세주, 기적비

독립운동 인물



### 소개

### Introduction



석정 윤세주 의사(1900.6.24. ~ 1942.6.3.)은 1900년 6월 24일 밀양군 노하동(현 밀양시 내이동) 880번지에서 태어나, 밀양공립보통학교와 서울의 오성학교를 졸업하고 밀양의 항일결사 일합사에도 관여하였다.

1919년 3월 13일 밀양면 독립만세시위를 기획, 주도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길림에서 황상규·김원봉과 재회하고 11월 10일의 의열단 창립에 참여하였다. 1927년 출옥 후 신간회 밀양지회 설립에 참여하여 총무간사로 활동했고, 민족지로 거듭난 중외일보의 서무부장, 경남인쇄주식회사 이사 등을 역임하며 부산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다 1932년 중국으로 재망명하여, 남경으로 가서 의열단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제1기생으로 졸업한 후 2기와 3기의 교관이자 '김원봉의 오른팔'이 되어, 항일청년투사 양성과 졸업생의 국내·만주 특파공작을 주관하였다.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선전부 상무위원으로서 1935년 통일신당인 민족혁명당이 창립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창당 후에는 훈련부장과 당보 편집인으로서 다대한 기여를 하니 '민족혁명당의 영혼'으로 일컬어졌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상해로 가서 당원들의 지하공작 및 대적선전방송을 지휘하였고,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분교 특훈반 한인학생대의 교관이 되어 항일군가 「최후의 결전」을 작사하고 널리 불리게끔 했다. 이어서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준비를 도와 성사시키고 정치조 부장과 훈련주임을 역임했다. 동포들이 많이 살고 무장 항일활동이 가능해질 화북전선으로의 병력 이동을 김원봉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승인받고, 1941년 북상지대의 정치위원이 되어 휘하 병력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 태항산 지구로 들어가 대일작전을 벌여가기 시작했다.

1942년 5월부터 대대적으로 개시된 일본군의 소탕전에 맞서는 '반소탕전'을 팔로군과 함께 전개하다 피격된 끝에 6월 3일 태항산 장자령에서 숨을 거두어 순국하였다. 198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중국 하북성 한단시의 진기료에 열사능원에 묘가 조성되어 있다.

「출처: 의열기념관 누리집」



### 위치

### Location



### 관련정보

### Information

- ▶ 주소 및 연락처
- 생가지 주소: 밀양시 해천길 22-1
-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 독립운동유적지(의열기념관 참고)
- ▶ 관련링크
- 누리집: <http://www.euiyeol815.or.kr/>

